친환경차 도시 꿈꾸는 광주, 인프라는 뒷전

수소차 관심 높은데 보조금 부족…전기차 충전소 설치 애로

전남 전기차 1576대 보급…충전소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 커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면서도 정작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소차, 전기차를 미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선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나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도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수소차 선도도시한다더니…=광주시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 변화를 꿈꿔왔다. 특히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초로 수소차 카 셰어링(carsharing·자동차 공유)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등 선도도시 조성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미흡, 후발지역과의 차별화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역 경제계 시각이다.

당장, 현대·기아차가 지난 26일 수소연료전지전기차(수소전기차·FCEV) '넥쏘(NEXO)'에 대한 예약 판매를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의 예약 판매대수는 214대로, 전체 예약판매 현황(1067대)의 20.0% 수준이다. 넥쏘에 보조금을 주는 지역(광주·서울·울산·창원) 중에는 세번째다.

광주시가 넥쏘 수소전기차에 보조금 1000만원을 책정한데다, 한번 충전에 609㎞를 달릴 수 있는 연비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구매의사를 밝히는 고객들이 잇따랐다는 게 현대기아차 설명이다.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에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할 때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차다.

하지만 광주지역 모든 고객들이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수소차 54대 분량(5억4000만)의 보조금 예산만 편성해둔 상태다. 올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12대 분량을 추가로 편성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대로라면 148명의 구매자들은 내년 보조금이 나올 때까지 수소차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충전소도 2곳에 불과하다. 광주시가 '수소차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수소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전기차도 갈길 멀어=전기차도 비슷한 처지다. 광주시는 올해 전기차 517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당 700만원씩 45억4300만원을 책정해놓았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625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까지 서울(4928대)이 전기차가 가장 많고 대구(2320대), 광주(625대) 등의 순으로, 올해까지 포함하면 서울(7400대), 대구(4600대), 광주(1245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

개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들이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입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48·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전기차를 구입한 뒤 아파트에 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전용 주차장'이 된다며 거절당하자 상무지구 호텔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했지만 조례 제정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1576대의 전기차가 전남을 돌아다니지만 충전소는 지역별로 차이가 커 부족한 형편이다. 목포는 전기차가 71대 보급됐지만 충전기는 29대에 불과하고 광양도 64대가 보급된 데 비해 충전소는 40곳뿐이다.

한편, 광주시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활성화에 핵심 충전 인프라도 645대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593기기(완속 579·급속 23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생필품 나눔' 50박스의 기적 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을 찾아 '50박스의 기적'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50박스의 기적' 행사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매월 소외계층의 지역민을 선정해 생필품 박스를 선물하는 행사로 올해 12번 진행하게 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사진〉

이번 '50박스의 기적' 세 번째 행사에서는 광주은행 여직원들이 직접 포장한 6개월 분량의 여성위생용품(생리대)과 바디용품, 생필품 등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 여성 청소년들에게 이번 선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세화아이엠씨 전 임직원 300억대 횡령혐의…투자자들 '패닉'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지역 향토기업인 세화아이엠씨 전 임직원들이 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데 이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가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화아이엠씨는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발생,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광주지검에 지난 2일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이 밝힌 횡령·배임 규모는 32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26.5%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 광주 경총 회장을 지냈던 전 대표이사도 연루됐다는 게 사측 공시 내용이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영진 횡령·배임금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한국거래소는이에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지하면서도 앞서 발생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점을 감안, 감사보고서로 인한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 지 지켜본 뒤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세화아이엠씨는 지난달 21일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로, 오는 11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다.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상장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측이 지난달 6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흘러나온 이후 감사 자료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난달 21일 감사의견서가 나올때까지 별다른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고의 상장폐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2.43 (-1.73)	↓ 금리 (국고채 3년) 2.19% (-0.03)
↑ 코스닥 872.32 (+4.52)	↓ 환율 (USD) 1054.20원 (-2.40)

더 강력해진 기아차 '더 K9'

첨단사양 탑재 안전성 강화

기아차의 '더 K9'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기아차는 3일 '더 K9' 공식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더 K9는 차체 크기가 기존 K9과 비교해 전장은 25㎜, 전폭은 15㎜, 축거는 60㎜ 커졌다.

전면부 디자인은 아일랜드 파팅(후드 라인이 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등의 경계와 독립된 형태의 구조) 기법을 쓴 후드와 빛의 궤적을 동적으로 형상화한 주간주행등, 기아차 고유의 쿼드릭 패턴 그릴 등을 적용해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면부는 세련된 인상을 주는 듀플렉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메탈릭 베젤(금속재질 테두리)을 적용했다.

실내에는 색상 관련 권위 있는 기관인 '팬톤 색채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7가지 테마 색상과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와'의 아날로그 방식 시계가 적용됐다.

안전성 면에서는 차로유지보조(LFA), 전방·후측방·후방교차 충돌방지보조(FCA·BCA-R·RCCA), 안전하차보조(SE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을 포함한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됐다. 엔진 라인업은 ▲3.8 가솔린 ▲3.3 터보 가솔린 ▲5.0 가솔린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전 10일 주총서 신임사장 선임

4개월 공백 해소…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 유력

한국전력이 오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한다. 4개월간 수장이 공석으로 남았던 탓에 차질을 빚었던 인사와 주요 업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월 사장 후보 모집공고를 낸 뒤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했다.

이어 오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신임 사장이 선임되면 지난 4개월여간 수장자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이다.

한전은 추천자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혔지만, 안팎에서는 김종갑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신임 사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산자부 차관과 하이닉스 대표 등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어 행정과 경영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점에서 한전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다. 또 이번 신임 사장 선임으로 그동안 다른 공기업에 비해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차질을 빚었던 주요 인사와 핵심사업 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8일 퇴임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한 뒤 두 차례 연임에 성공, 역대 최장수 한전 최고경영자(CEO)였다. /최재호기자 lion@